▌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2호 [2009. 12] : 37~64

# 브라질의 탈식민화, '킬롬부'*

## -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식민성의 만남 -

김 영 철**
(Kim, Young-Chul)

<Abstract>

**The Quilombo of Palmares: Decolonization of Brazil**

This article offers a new perspective on the maroon state of Palmares in Brazil. The present essay gives a viewpoint of decolonization in colonial period, describing decolonial aspect and Afro-Brazilian aspect of the history of Palmares. In aspects of Afro-Brazilian, the quilombo of Palmares is resistance and decoloniality of african colonialization in America and Brazil. The Quilombism was born out of quilombo model of economics and politics, in which they exercised rational productions and political system. The purpose is to review and expand up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Palmares and on the aspect for decolonial strategies.

**[Key Words: Brazil/ Coloniality/ Decoloniality/ Africa/ Quilombo]**
**[주제어: 브라질/ 식민성/ 탈식민성/ 아프리카/ 킬롬부]**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E-mail: latin@pufs.ac.kr

# Ⅰ. 들어가기

브라질은 아메리카 문명의 토대에 포르투갈의 유럽문명과 아프리카 문명이 혼합된 혼종성이 높은 독창적인 문화이다. 문화의 혼종성은 서구 근대 문명이 브라질에 도착한 1500년 이후 형성되었으며 위계질서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서구문명은 모든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었으며 브라질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 목표로 근대성 혹은 근대적인 것이 되었다. 브라질 문화에 강하게 나타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질서, 가톨릭 중심의 종교적 위계질서와 서구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인종적·종족적 위계질서 등이 근대성이 만든 문화형태이다. 이와 같은 식민성의 내면화는 유럽중심적 사고와 가치로 브라질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고착되었다.

카스트루는 브라질을 설명할 때 기술적·경제적 생산 관계에서는 유럽중심주의적인 서구적 공간,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남미적인 공간, 문화적인 환경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De Castro, 2009, p.24). 초기 식민과 정착과정에 '아프리카'는 식민지 수탈을 위한 노동력으로만 고려되었지만 아프리카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인종과 문화가 브라질 식민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식민기간 유입된 아프리카 흑인은 약 500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17-18세기에는 인디오보다는 아프리카 문화와 언어가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숫적인 성장은 식민지배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집단적 저항을 가능하게 했고 도망 노예가 증가하여 집단적인 공동생활에 기반한 킬롬부(quilombo)[1]를 만들었다. 때문에 킬롬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아프리카 흑

1) 킬롬부는 식민기간 도망 노예들이 만든 공동체를 통칭하는 말이었다. 지금의 알라고아스 주에 있었던 팔마리스 킬롬부가 가장 큰 규모였으며, 1600년경에 세워져 1695년까지 유지되었다. 식민기간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노예제가 지속되

인들의 탈식민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킬롬부에 거주하는 흑인은 아프리카에서부터 강요된 이주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강요되는 노동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이중적인 식민성으로부터의 탈식민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킬롬부가 식민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대성과 식민성의 관계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아프리카 문화의 보존 공간으로서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근대성과 식민성 관계에서의 킬롬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분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는 근대성과 식민성에 대해 언급할 때 식민성의 피해자로 인디오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지만, 브라질에서는 흑인이 근대성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브라질로 유입된 이후 권력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브라질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본고에서는 킬롬부의 문화적 특성보다 탈식민화 혹은 탈식민화 과정으로서의 탈식민성에 중점을 두고 아메리카의 식민성에 아프리카의 식민성이 어떻게 이식되고 정착했는가를 도망 노예들의 공동체인 킬롬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계적인 질서에 의해 형성된 브라질 문화의 혼종성이 어떤 지배와 피지배, 피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 즉 식민성과 식민성으로 형성되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근대성과 식민성, 탈식민성과 네그리튀드의 관계 속에서 킬롬부가 지니

---

었던 독립이후에도 킬롬부가 건재했고 현재도 브라질 정부가 인정한 킬롬부만 약 10,000여개가 있다. 흑인사에서 킬롬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Uma História Do Negro no Brasil" 참조.

고 있는 탈식민성의 특성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킬롬부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4장에서는 킬롬부의 정치사회구조, 경제활동구조적인 측면을 탈식민화 과정으로 분석할 것이다.

## Ⅱ. '아메리카'의 네그리튀드와 킬롬비즘

### 1. 근대성과 탈식민성

브라질 문화는 근대성과 식민성의 끊임없는 대립과 조절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근대성은 흔히 16,17세기 유럽에 처음 등장하여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 지식, 권력,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집합체로 이해된다(니콜라, 2008, 35). 유럽의 근대적 지식체계와 우주론을 중심으로 한 인식, 다양한 노동의 형태(노예, 반(半)농노, 임금노동, 소상품 생산자 등)가 공존하는 독특한 계급 구성, 중심과 주변의 분할에 따른 국제적 노동분업, 유럽언어 중심적인 언어체계, 이성애 중심적인 성차별적(sexual) 질서, 유럽중심주의적인 인종적/종족적 질서, 남성가부장적인 젠더 질서, 기독교 중심적인 종교적 질서 등을 배태시켰다. 이와 같은 근대성은 식민성과 결합되어 있어 근대성이 강화된다는 의미는 식민성 또한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식민성(coloniality)이 근대성에서 파생된 것도 아니고 근대성에 앞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식민성과 근대성은 같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유럽의 산업혁명이 식민지의 강제 노동을 통해 가능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 권리, 법률 그리고 국민국가, 시민권, 민주주의 같은 근대적 제도들은 비유럽 주민들의 지배/착취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브라질 문화에 나타나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체제와 권위적인 정치체제, 신앙 자체보다는 종교적 행위를 중시하는 위계적인

종교 문화, 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 백인중심주의적인 인종 질서 등이 식민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아프리카와 흑인은 원주민의 경우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시스템과 역동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백인/유럽 문화의 대항문화로 인식되는 흑인문화는 지배 권력 구조 내에서 인종적 분리, 인종적 혼혈, 분리와 혼혈의 결과들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키워드로서 가치를 지닌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아프로아메리카니즘은 이산의 특성, 정체, 혼합주의로 그려지며 얼핏 보기에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평등의 원칙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성과정 자체가 철저히 권력의 식민성의 위계질서에 포함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발견 이후 아프리카계 흑인은 강제이산, 정착, 강제노동의 과정 전체가 노동력의 부족을 메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김영철, 2007).

탈식민적 비판이론은 반식민주의적 담론의 한계를 벗어나서, 탈영토화, 민족적 경계, 민족주의 등을 구성하는 본질을 문제 삼는다. 유럽의 탈중심화를 시도한 개념들이 혼합주의, 크레올화, 혼혈주의(mestizaje)라고 하지만 여전히 서구 중심의 개념들이다. 이러한 혼종성의 개념은 상당 부분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인종적 이데올로기이다. 민족주의는 독립 이후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인종과 종족의 차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이며 국민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인종 민족주의는 인종적 혼혈, 인디언니즘(indianismo) 혹은 흑인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혼혈성이 민족주의적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인디언니즘적 입장을 가져야 하며, 인디헤니즘(indigenismo)은 과거의 인디오를 상징화해서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현재 문화변용된 인디언의 생활환경을 선뜻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의 사회적, 정치

적, 문화적 상황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인종적 스펙트럼은 흑인의 네그리튀드(negritude)이다. 네그리튀드는 식민지 흑인들의 존재론적인 소외와 그 소외를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의 외침이었고, 유럽적인 가치에 의해 억압당해 온 흑인성을 깜깜한 망각의 어둠으로부터 복원해내려는 외침이었다. 또한 치욕스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탄생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과거로부터 대물림되어 내려온 열등 콤플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양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인간적 존엄성의 표현이었다(심재중, 2004, 12-13). 인종적 민족주의가 내포하는 바는 유럽적 사고와 문화의 외면, 수용과 거부이다. 네그리튀드는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야만성에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진정한 타자성과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으로 토착주의적이면서 아프리카 중심적인 역전적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네그리튀드가 말하는 탈식민성은 흑인이 백인의 타자일 뿐 아니라 흑인의 타자이기도 하다는 고통스러운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논의는 셍고르의 네그리튜드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그는 네그리튜드가 검은 아프리카의 문화적 특징의 총화라고 강조하면서, 본원적인 네그리튜드와 효과적인 해방 수단으로서의 네그리튜드를 구별하고 있다. 본원적인 네그리튜드란 백인이 아프리카 대륙을 짓밟기 이전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네그리튜드는 지배당한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식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식민적인 투쟁의식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박원탁, 1989, 45). 네그리튀드는 아프리카의 흑인뿐만 아니라 서구의 근대성과 식민성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아메리카 흑인들에게도 아프리카의 저항정신과 문화의 본원적 가치를 회복해야 필요성을 강조한다.

## 2. 브라질의 네그리튀드와 킬롬비즘

네그리튀드는 브라질 흑인과 흑인문화를 재해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흑인과 흑인문화는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혼종성의 범위 내에서만 논의되었다. 흑인성 즉, 네그리튀드의 등장은 브라질 흑인, 흑인문화와 사회운동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사실 브라질의 탈식민성 논의는 포르투갈인이 도착한 식민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근원은 식민기간 발생했던 인디오들의 도망과 저항,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 아프리카 노예들의 도망과 저항,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포르투갈인의 도착이후 인디오들의 도망과 저항은 자신들의 사고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흑인들의 저항과 도망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이라 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달성하지 못한 반식민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메리카 즉 브라질에서의 저항은 아프리카 문화전통을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식민지배와 정당화시키는 서구 자본주의의 팽창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곧 브라질 식민화 과정에서 만나는 아프리카의 저항이자 아프리카적 반자본주의 논리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브라질 흑인의 유토피아는 인종적 차별과 편견이 없으며 모두가 경제적 평등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킬롬비즘(Quilombismo)[2]으로 발전했다. 킬롬비즘은 브라질에서의 흑인들의 이상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흑인의 노예화와 노예무역 이전의 기억을 되살리고 동시에 흑인들이 아메리카에서 더 나은

2) 킬롬비즘은 1980년대 흑인저항이데올로기로 문화적 급진주의와 정치적 급진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 전통의 발견과 흑인문명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1960년대 브라질 민족주의의 토대가 되었던 맑시즘에 영향을 받았다. 킬롬비즘은 브라질 흑인의 해방은 자본주의 수탈로부터 브라질 국민 전체가 해방되는 것이라고 본다.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조적·환경적 요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급진적인 흑인 운동으로 이어진다.

브라질 흑인운동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수용하고 있는 킬롬비즘은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디우프(Cheik Anta Diop)[3]와 윌리엄스(Chancellor Williams)[4]의 범아프리카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들은 서구 문화는 북아프리카 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문화는 흑인문화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면서 흑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킬롬비즘도 브라질 흑인의 현재 상황을 아프리카인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아프리카인들의 인종적·문화적 논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활동 플랜을 제시한다. 즉, 과학,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흑인의 업적들을 강조함으로써 백인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인종적·문화적 관념들을 바꾸고자 한다. 또한 흑인과 흑인문화가 지금과 같이 황폐해진 원인이 서구인들이 자본주의 팽창을 위해 저지른 식민화와 서구문화 중심주의적인 시각을 통한 문화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킬롬비즘은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의 탈식민화를 위한 지식적 도구임을 강조한다(Nascimento, 1980;92). 그러므로 킬롬비즘이 내세우는 경제적 평등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등은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에서 추구해야 할 이상 사회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킬롬비즘은 해방이 이루어지는 곳, 종족적·선대적 관계가 회복되는 곳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모든 수준의 흑인 생활이 녹아있는 브라질 흑인의 개성이며, 전통을 중시여기는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출발점은 다

3) 세네갈의 디우프는 이집트 문명은 서구 세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백인이나 백인에 가까운 인종이 만든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만든 것이라 주장하고,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문명들은 이집트 문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4) "The Destruction of Black Civilization"을 통해 아프리카 인종의 역사 재해석을 시도했으며 아프리카 역사 연구와 교육의 관점을 아랍과 유럽의 역사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역사로 전환시켰다.

르지만 유럽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등으로 희생당한 원주민 해방운동과 같은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Nascimento, 1980:148).

유럽중심주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킬롬비즘은 백인 우월주의, 백인화(Whitening), 유럽 문화의 우수성과 계층화와 같은 정신적 식민화를 탈피함으로써 탈식민성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킬롬부가 단순히 도망노예들이 만든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의 존재론적 가치, 공존, 연대, 자유와 형제애로 뭉쳐진 집단이다. 집단을 움직이는 경제적 평등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맑스주의가 제시한 인류발전의 최종단계이다. 킬롬부가 채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통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5]와 우자마아(Ujamaa)[6]는 강제이주당한 흑인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흑인과 흑인문화는 브라질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아프리카인의 생명비용과 인적비용이 적용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창조적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인 직업은 처벌,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를 향유하는 인간 해방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김영철, 2009:155-156).

따라서 킬롬부는 브라질 자본주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립된 경제 활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브라질 정부가 킬롬부 공동체를

5) 아프리카 전통의 공동체주의는 아프리카 사회를 특징짓는 것이며, 공동체가 개인주의를 압도하는 존재론적 우선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주의를 기본전제로 한다. 아프리카 공동체의 에토스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적인 인권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아프리카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를 일체화시키는 급진파와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고 개인들의 공동체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온건파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Kenyan, 2006).

6) 확대가족 혹은 가족애라는 스와힐리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탄자니아의 줄리어스 니레레레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발전 모델로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했다. 민주주의 창달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적 평등의 제도화를 추구했다(위키피디아).

법적으로 인정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은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립된 어떤 경제 사회 조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7]. 도망 노예들이 만든 전통적인 킬롬부와 독립된 경제활동과 전통 문화 집단인 현재의 킬롬부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모든 킬롬부는 도망노예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흑인 저항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런 논의에서 킬롬비즘이 주장하는 요소들은 흑인들이 지니고 있는 오래된 이미지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식민기 브라질에 나타난 킬롬부는 아프리카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아프리카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을 재건하는 과정이었으며, 어떤 형태로던 식민 사회를 거부하는 다양한 인종집단들이 형성한 탈식민화의 과정이었다.

## Ⅲ. 브라질 탈식민화로서의 '킬롬부'

### 1. '아프리카' 킬롬부의 정착

포르투갈인들은 브라질 식민 사업을 위해 아프리카 노예를 유입했다. 이 짧은 문장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개의 식민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유럽인들이 서구 자본주의의 수탈을 통해 아메리카를 식민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식민성을 채득한 아프리카인들이 또 다른 식민지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근대성이 흑인들에게 이중의 식민성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아메리카의 식

7) 인종평등정책위원회의 2007년 1월 발표에 의하면 3,250개의 킬롬부가 있으며 약 2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흑인운동단체인 UNEGRO는 4,000개가 넘는다고 주장한다.

민화임에도 아프리카 흑인이 억압과 피지배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미 억압적인 권력 구조의 패자가 브라질로 끌려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흑인 노예는 서구 근대성에 의해 식민화된 아프리카인들의 재식민화를 통해 강제로 이주된 것이다.

흑인 노예들이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만든 킬롬부가 아프리카 흑인들의 식민성을 잘 설명해 준다[8]. 킬롬부는 지금의 앙골라에 자리하고 있던 킴분두 킬롬부(KiMbundu Kilombo)에서 유래되었다[9]. 당시 킬롬부가 남성의 성인식이나 남성 중심의 군사 조직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전쟁, 채무, 범죄, 기근 등이었다. 특히,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었다(주경철, 2009, 293). 그러므로 군사조직인 킬롬부가 대서양을 건너 다시 출현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내부에서 권력 쟁탈을 위한 싸움이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노예화되었다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이미 근대성으로 무장한 백인들과의 탈식민화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메리카에서 흑인들은 백인지배에 대해 저항해야 했고, 자신들과 유사한 사회적・문화적・인종적 위계질서에 노출되어 있던 인디오와의 문화적 충격과 정치적 대립을 극복해야 했다. 즉 킬롬부는 유럽문명과 아메리카 문명에 포위된 ‘문화 섬’으로써의 역할과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립된 상황은 자생력을 갖춘 공동체 집단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외부에 자신들을 지원해 줄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

8)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는 팔렌케스(Palenques), 쿰베스(Cumbes), 라데이라(Ladeiras), 맘비세스(Mambises), 영국령 아메리카에서는 마룬(Maroons), 그리고 프랑스령 아메리카에서는 그랑 마롱지(Grand Marronage)라고 한다.

9) 고고학자들은 킬롬부 인종의 기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는 앙골라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는 중앙 아프리카에 기원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앙골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킬롬부가 “강가 앙골라”라는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앙골라 기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히 외부와 단절시키고 침입에 맞서기 위해 내부의 단합과 결속력을 높이는 집단적 생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일한 방편이었다.

킬롬부는 식민사회가 백인, 가톨릭, 대농장제, 노동의 분화와 같은 서구 근대성에 의해 길들여질 때 흑인, 원시 종교, 공동생산과 협동이라는 아프리카적 방식에 따라 성장했다. 초기에는 흑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서구 식민 사업에 반대하거나 식민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백인, 인디오, 새로운 인종인 물라토가 공존하면서 인종적 혼혈이 진행되었다. 공동체 내의 혼혈은 식민사회의 백인 우월주의적 위계질서에 따른 혼혈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킬롬부는 주류사회를 특징짓는 백인 브라질(Brasil Branco) 속의 흑인 브라질(Brasil Negro)이라고 할 정도로 식민사회와는 경제시스템, 정치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종적·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킬롬부가 아닌 주류사회와 통합된 흑인들도 향유하는 문화가 다르다. 식민기간 킬롬부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던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집단 촌락이었는데, 북동부 지역에 형성된 팔마리스 킬롬부(Quilombo de Palmares)[10]가 규모와 식민 사회에 미친 영향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였다. 1695년에 도밍구스 조르지 벨류(Domingos Jorge Velho)가 이끄는 포르투갈 원정대가 파괴할 때까지 약 70년간 유지되었으며 흑인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네덜란드가 1630년대에 북동부를 침입하면서 도망 노예들이 증가하면서 팔마리스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한때 식민 정착 마을보다 흑인 촌락이 더 많아 식민

10) 팔마리스는 지금의 알라고아스 주와 페르남부쿠 주에 위치해 있는 바히가(Barriga) 산맥에 도망노예들이 만든 가장 큰 노망 노예 공동체이며, 켄트(Kent)는 브라질의 흑인공화국이라고 주장한다. 포르투갈 식민정부와 네덜란드인들이 각각 1640년 Bartholomeus Lintz, 1643년 Roelox Baro, 1645년 Johan Blaer와 Jürgens Reijmbach를 대장으로 하는 원정대를 파견했으나 점령하려하였으나 실패했을 정도로 단단한 정치·사회조직을 구축했다.

사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 대농장주들이 주로 혼혈인이나 현지 지리에 밝은 인디오들로 구성된 원정대를 파견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흑인들이 노출된 지역을 버리고 더 접근하기 어려운 내륙 산간이나 정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킬롬부는 이름은 있지만 실체를 찾기 어려운 흑인 집단 촌락으로 성장했다.

## 2. 식민사회에서의 탈식민화

맑스주의자자들은 킬롬부의 존재를 노예노동에 대한 저항으로 분석한다. 즉 서구 자본주의가 강제한 대농장제, 노예제도와 불평등한 교환관계를 거부하는 흑인 노예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급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킬롬부의 등장을 브라질 노예 경제 시스템의 점진적 붕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킬롬부 등장이후 식민시스템은 200년간이나 지속되었고, 노예제는 그 보다 80년이나 더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흑인들의 킬롬부 형성은 반식민 운동과 노예제 폐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있다. 특히, 흑인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식민체제에 저항하고 지속적으로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여 흑인노예의 해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 식민기간 노예 저항을 이상사회라는 정신적인 측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 흑인들의 구전을 통해 해방을 꿈꾸게 했다는 것은 킬롬부가 단순히 아프리카 문화의 보고로서뿐만 아니라 저항과 해방운동의 토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De Castro, 2009, 26).

때문에 킬롬부는 한 시기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킬롬부는 다양한 의미로 브라질 사회에 받아들여지는데 ‘공동체가 형성된 곳을 지칭하는 것부터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민중적인 저항(Festa de

Rua)', '사창가가 있는 공공장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큰 혼란이 있는 대립, 통합, 사회적 관계', '기후와 토양으로 인해 한계지에 위치하는 경제체제'로 등으로 이해된다(Leite, 2000, 336-337).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지는데 백인들이 브라질 사회에서 흑인의 인종적·문화적 열등성을 사회화시킨 결과이다.

여기에서 킬롬볼라젱(quilombolagem)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 킬롬볼라젱은 식민기간 브라질 전역에서 노예들이 리더하고 조직한 반란운동을 말한다. 이것은 사회변혁운동이었으며 노예시스템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세력(힘)이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 행태 붕괴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유노동으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킬롬볼라젱이 사회 운동의 추동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종족적 정체성의 안정화, 특수한 정치적 메카니즘의 형성, 자연 자원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의 재정의, 문화 재창조를 통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집단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킬롬볼라젱에는 노망 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원주민, 물라토, 수배자, 산적, 도망 군인, 여성, 가난한 백인과 창녀들이 끼어 있었다(Bergel, 2006,2-3). 브라질 식민사회의 억압적 구조에서 비롯된 모순과 대립이 킬롬부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었다.

킬롬부에서 브라질 사회저항 운동의 뿌리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 1970년대를 전후해 등장한 흑인운동, 인권운동과 무토지 운동까지도 저항운동의 뿌리를 킬롬부에서 찾는다. 사실 킬롬부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강제된 노동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상징적 공간이었는데 18세기 일레우스(Ilhéus) 카피타니아에서 발생한 노예들의 반란에서 킬롬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일레우스에 있는 산타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반란이 발생했다. 1789년 노예들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경작과 지방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치권을 포함하는 노동조건을 정하여 농장주에게 협정 안을 보냈다(Gomes, 2004, 741)[11]. 농장주인 마누엘 다 실바 페헤이라는 약 3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살해하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노예주인에게 평화 협정안을 제안했다. 이 요구안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자신의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자유일로 해 줄 것,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과 카누의 대여,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 보낼 수 있는 권리, 노예감시인의 즉각적인 교체와 노예들이 인정하는 감시인의 채용, 사전승인 없이 축제와 바투키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일일 노동 시간과 속도를 정해 줄 것 등이었다. 이 내용은 예수회원들이 농장을 관리할 때 누렸던 자치권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Gomes, 2004, 741). 이와 같은 사건들이 식민시기 전반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흑인 노예들이 식민사회의 경제활동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킬롬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킬롬부가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역사를 초월하여 저항이라는 공시적·보편적 개념으로 안착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이 아메리카에 강제된 식민의 정치, 사회와 경제구조를 바꾸려는 탈식민화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아프리카인들의 탈식민화는 강제이주 당한 땅인 아메리카로부터의 탈출, 주인과 노예 관계로 맺어진 백인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럽문화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11) Schwartz이 1977년에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학계에서 이론적·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다. 일부학자들은 노예제 하에서 노예들 스스로 노예저항, 만족(complacency)와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자들은 그 농장의 노예들만이 포함된 비전형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다.

# Ⅳ. 브라질 흑인의 탈식민화

## 1. 아프리카 친족중심의 연방형 통치구조

팔마리스는 흑인운동에서 흑인 공화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데올로기로 이론화되면서 정치·사회적인 의미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 흑인운동을 주도했던 압지아스는 킬롬부가 도망 노예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유 형제단, 연대, 공존, 실존적 단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적 평등주의라는 측면에서 사회-정치적 인류의 진보 단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킬롬비즘은 브라질식 범아프리카주의의 실제적인 정치프로그램인데 16세기 브라질 북동부에 자리한 팔마리스 킬롬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팔마리스가 실현해야 하는 이상 사회라고 주장한다.

팔마리스는 17세기 아프리카에 형성되었던 많은 부족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의 흑인 국가였다. 중서부 아프리카 킬롬부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에 따른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와는 다른 형태로 친족 중심의 연방 형태였다. 왕은 지방 지도자들의 집회에서 선출되었으며, 공동 관심사도 집회에서 결정되었다. 왕의 선출 방식과 정책 결정의 민주적 성격이 팔마리스가 지니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팔마리스의 초대 왕은 “강가 줌바(Ganga Zumba)”였는데, 낌분두어(Kimbundu)인 “엔강가 이아 엔줌비(Nganga-ia-Nzumbi)”라는 말이 토착화된 것으로 “정신적 지도자”라는 뜻이었다. 강가 줌바가 죽은 후에는 조카였던 강가 줌비(Ganga-Zumbi)[12]가 승계했는데 “전쟁의 신”이라는 뜻으

12) 현재 줌비는 흑인의 영웅일뿐만 아니라 브라질인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앤더슨은 줌비가 1655년에 태어났는데 포르투갈 군대의 원정에서 체포되어 포르투칼부의 멜루(Melo) 신부가 양육하여 프란시스쿠(Francisco)라는 세례명을 받았으며

로 킬롬부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포르투갈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는 측면에서 흑인들의 저항 정신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킬롬부의 중심 도시는 왕이 직접관리하고 다른 도시들은 권력자가 지배하고 있었다. 팔마리스의 제2의 도시는 수부피라(Subupira)였는데 왕의 동생인 가나 조나(Gana Zona)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카신기(Cachingi)강변에 약 800가구로 구성되어 있었고 흑인 전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다(Allen, 2001, 36-40: Anderson, 1996,553). 킬롬부의 사회·정치조직은 친족관계와 공적이나 위신에 근거하고 있다. 각 킬롬부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팔마리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상호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친족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가나 조나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왕의 동생이었으며 수부피라 킬롬부의 지도자였다. 1680년에 왕이 포르투갈과 협정에 서명하면서 권력이 가나 조나와 왕의 조카이며 팔마리스 북부를 관리하는 줌비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킬롬부의 사회·정치 조직은 중앙 아프리카의 부족 집단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었다[13].

팔마리스 킬롬부는 아프리카 반투어족과 문화를 지닌 자가(Jaga) 부족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리스본과 아프리카 교회의 기록을 보면 1580년부터 지금의 앙골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반투인들이 노예로 브라질에 보내지기 시작했다. 당시 콩고왕국은 5개의 느슨한 연맹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팔마리스 킬롬부도 잠비, 아로티레니, 타보카스, 담브라반가, 수부피라, 마카쿠, 오젠가, 세린냐엥, 아마루, 안달라키투치, 포르투칼부로 구성된 연맹체였다[14]. 각 킬롬부는 지역의 식민농장을 공격하거

15세가 되던 1670년에 팔마리스로 도망한 노예였다고 밝히고 있다(Anderson, 1996:560).

13) 킬롬부의 기원에 대해서는 Kabengele Munanga의 "Origen Histórico del quilombo en Africa" 참조.

14) Zambi, Arotirene, Tabocas, Dambrabanga, Subupira, Macaco, Osenga, Serinhaém,

나 방어를 위해 군사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강가 줌바의 권력은 반투인들의 왕으로서 정신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팔마리스의 본거지인 마카쿠 킬롬부에서는 상 브라스, 아기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으며, 포르투갈어와 반투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라디누들이 각 모캄부의 교구 목사로 예배를 집도하고 가톨릭 교회의 신부처럼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진행하며 기도문을 가르쳤다.

킬롬부의 사회구조는 반식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식민사회와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킬롬부 내에 노예제가 유지되었다. 노예제를 피해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이미 노예제가 있었고 노예를 통한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현상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노예들은 새로운 노예들이 도착할 때까지 신분이 유지되었다. 둘째, 일부다처와 일처다부제가 인정되었다. 만성적인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초기 도망노예들의 대부분이 남자였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집단 대표가 있었다. 킬롬부는 아프리카인, 아프로 브라질인, 백인과 인디오의 인종 집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대표들이 있었다. 킬롬부가 단순히 아프리카의 재현이 아니라 식민사회에 저항하거나 부적응하고 있는 사회 계층들을 수용하면서 식민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킬롬부는 노동에 따라 농민, 수공업자, 군인과 관리인 등 4개 계층이 있었다. 지도자는 정착지 외부에 농장과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모캄부를 도망치는 흑인들뿐만 아니라 주

---

Amaro, Andalaquituche, Porto Calvo 등이다. 수부피라와 타보카스는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주축이고, 마라루는 포르투갈인, 나머지는 반투족들이 주축인 도망 노예 마을이었다(Funari, 2001: 17).

술사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관리인은 조세를 관리하는 행정 관리인, 법 적용과 처벌을 담당하는 법적 관리인과 군대 훈련을 담당하는 군사 행정으로 나누어졌다. 초기 킬롬부에는 여성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했으며 여성들은 주로 바구니와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 여성이 군대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정치 활동에는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콸투니(Aqualtune) 모캄부를 다스리던 사람이 왕의 어머니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Anderson, 1996,551).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킬롬부는 도망 흑인들이 억압적 구조에 의해 배태된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초보적이지만 급진적인 탈식민화를 위한 노력이면서 저항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생존 공간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흑인 공동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흑인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나, 지배와 저항의 공간 등의 정의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킬롬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식민화가 시작된 이후 약 5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브라질 사회구조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흑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준다.

## 2. 토지소유권 없는 공동체

킬롬부는 공동소유와 집단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아프리카 사회에서 왕은 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인민들에게 조세를 요구한다(주경철, 2009, 293). 그러므로 초기 킬롬부에서도 토지와 생산 수단의 소유 개념이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 만큼은 무소유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

다[15]. 그렇지만 식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식민사회에서 수용되는 많은 경제활동이 유입되었다. 정착단계의 경제활동은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이 채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채집과 사냥이었다. 생산품들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활방식으로 나무열매, 약용식물, 팔메이라 기름, 여러 가지 섬유, 망고와 오렌지 같은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킬롬부는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지고 토양이 비옥한 곳을 선택하여 정착했다. 초기에는 식민사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정착지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킬롬부가 증가하고 노예사냥이 심화되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내륙으로 이동했다.

이 단계를 거쳐 경작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사실 아프리카인들은 브라질에 정착한 인디오들보다 농업기술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미 보습, 다작경작과 비료를 사용할 줄 알았다(Fiabani, 6).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단순한 채집생활로는 식량자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 주로 식량자원인 페이자웅, 만디오카, 고구마, 바나나와 사탕수수 등을 재배했다. 노동 방식과 소유구조는 초기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생산품의 관리 혹은 운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킬롬부가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인근의 식민사회와 물물교환을 시작했다. 킬롬부 인근에 위치한 식민 마을은 대부분이 사탕수수, 카카오와 면화 등을 비롯한 환금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식량 작물은 항상 부족했다. 이 때문에 식민마을이 킬롬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물물교환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

15) 식민사회와 달리 공동체는 서구 자본주의 문명이 전달했던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 생산이 가능했다. 최근 브라질 정부가 킬롬부의 전통성과 역사성이 인정될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흑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토지소유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민 경제의 성장은 유럽중심적인 경제구조가 제도화되고 식민인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에서는 노예 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사탕수수 재배가 확대되고 대농장제가 제도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농장주들은 경작을 위해 끊임없이 흑인 노예들을 들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흑인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수명이 짧았고, 남자 중심으로 유입하면서 노예 인구의 자연 성장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에 적응한 노예들이 식민체제를 거부하고 도망했는데, 결국 식민 경제 성장이 곧 킬롬부의 성장을 부추긴 것이 되었다. 킬롬부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사탕수수 경작과 환금 작물 재배로 생필품과 식량이 풍족하지 못했던 식민 마을과 교역했다. 주로 팔마리스 가까이에 위치한 이포주카(Ipojuca), 세링냐엥(Serinhaém), 우나(Una), 상미구엘(São Miguel), 포르투 칼부(Pôrto Calvo) 마을이었다. 킬롬부의 주식은 일년에 두 번 수확이 가능한 옥수수였으며 만디오카, 페이자웅(Feijão), 고구마, 사탕수수, 바나나와 다양한 야채들을 재배했다. 그리고 야자수의 일종인 핀도바(Pindoba)를 재배했는데, 여기서 요리에 이용되는 기름을 추출할 수 있었다. 농업 외에 철제 장비, 도자기와 나무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백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기와 기타 생필품들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러한 무기를 이용해 대농장 침범이 잦아지고, 팔마리스 킬롬부의 경제와 사회가 식민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킬롬부의 공동 노동 방식은 식민시대 노예 노동력에 의지하던 플랜테이션 보다 생산성이 높았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 협력 노동과 사회적 연대가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생산품은 식민 사회와 교환했다. 토지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특정한 킬롬부에 정착한 모두의 것이었다. 흑인들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전통을 이어왔고, 토양의 고갈과 안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땅을 소유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팔거나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없었다(Moura, 1988: 172). 토지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 때문에 근대적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 평등주의가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킬롬부는 식민경제가 도입하고 있는 집단 노동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그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도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지만 식민자들에 의한 강제노동이였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았으며, 생산 활동이 식민사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균등한 교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세계 즉 유럽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킬롬부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자발적인 노동이었으며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내수지향적인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킬롬부는 대농장, 플랜테이션, 강제노동과 단일 작물 농업을 구성하고 있던 식민경제의 또 다른 경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킬롬부는 토지의 무소유, 자급자족형, 자발적 노동과 다작농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진행되어 식민경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했다. 킬롬부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식민사회와 배치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영향 외에 식민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식량문제 해결에 일정정도 도움을 주면서 식민정부는 아니더라도 식민 마을에서는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식민기간 포르투갈 정부가 도망노예 사냥과 킬롬부 파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킬롬부가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16].

16) 조엘 루피누스는 킬롬부를 식민세계와 대비하여 정의하고, 식민체계와 비교해서 킬롬부는 자유농민 조직이며, 다작농을 통해서 땅을 경작하고 있으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킬롬부가 유토피아를 실현한 것이라 주장

## Ⅴ. 맺음말

브라질은 발견과 함께 유럽문명의 근대성에 참착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종교적인 위계질서와 인종적·종족적 위계질서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 킬롬부는 아메리카의 식민성에 아프리카의 식민성이 이식된 문화공동체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근대성과 식민성의 관계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 킬롬부 분석을 통해 브라질 문화의 혼종성이 지배와 피지배, 피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 즉 식민성과 식민성으로 형성된 문화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브라질 인종 스펙트럼 중의 하나인 네그리튀드는 식민지 흑인들의 존재론적인 소외와 그 소외를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의 외침이었고, 유럽적인 가치에 의해 억압당해 온 흑인성을 깜깜한 망각의 어둠으로부터 복원해내려는 외침이었다. 네그리튀드의 등장은 브라질 흑인, 흑인문화와 사회운동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브라질에서 유럽 근대성으로부터 벗어나 브라질 중심적인 논의를 이끌었던 탈식민성은 포르투갈인의 도착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때문에 브라질의 탈식민성은 식민기간 발생했던 아프리카 노예들의 도망과 저항, 문화적 공동체 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킬롬비즘은 유럽중심주의의 정신적 식민화에서 비롯된 백인 우월주의, 백인화, 유럽 문화의 우수성과 같은 식민성을 거부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도망노예들이 만든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가치, 공존, 연대, 자유와 형제애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경제적 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인간적인 발전 단계였다.

킬롬부는 브라질로 유입된 흑인들이 아프리카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

한다(Fonseca, 2000, 313).

유지하고 있었던 공동체였다. 또한 초기에는 흑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서구 식민 사업에 반대하거나 식민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백인, 인디오, 새로운 인종인 물라토가 공존하면서 인종적 혼혈이 진행되었다. 킬롬부 공동체 내에서의 혼혈은 식민사회의 백인중심주의적 위계질서에 따른 혼혈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역사를 초월하여 저항이라는 공시적·보편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이 아메리카에 강제된 식민의 정치, 사회와 경제구조를 바꾸려는 탈식민화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아프리카인들의 탈식민화는 강제이주 당한 땅인 아메리카로부터의 탈출, 주인과 노예 관계로 맺어진 백인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럽문화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킬롬부는 도망 흑인들이 억압적 구조에 의해 배태된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초보적인 수준의 탈식민화 과정이면서 저항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생존 공간이다. 브라질이 대농장제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소농과 농민으로 성장한 킬롬부가 흑인들의 문화적 저항을 나타내어주던 아니면 계급투쟁으로 평가되던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농장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무소유의 경제활동이 독립된 공간이지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 참고문헌

김영철(2009), “브라질의 인종적 유토피아와 킬롬비즘”, 중남미연구, 제28권 1호. pp.133-162.

_____(2007),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 리맵핑",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 2007년 인문한국 연구계획서.

니콜라 밀러.스티븐 하트, 서울대 라틴아메리키연구소 옮김(2008),『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울, 그린비.

박원탁(1989),『아프리카 지역정치론』, 서울, 명지 출판사.

심재중(2004), "카리브의 문화 현상 ; 정체성 담론과 이데올로기 -아이티와 마르티니크의 흑인 정체성 담론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7, No.2. pp.5-23.

이광윤(1998), "네그리뚜지와 브라질의 흑인문학", 외대논집 제18권, pp.587-608.

주경철(2009),『대항해시대: 해상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Allen, Scott Joseph(2001), "Zumbi Nunca Vai Morre: History, The Practice of Archaeology, and Race Politics in Brazil", Dissertation of PhD. Providence.

Anderson, Robert Nelson(1996), "The Quilombo of Palmares: A New Overview of a Marron State in Seventeenth-Century Brazil",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28, pp.545-566.

Bergel, María Laura, *Quilombos and their influence on Afro-Brazilian Interpenetraion*, April, 2006. pp.1-10.

Carvalho, Aline Vieira de, "Archeological Perspectives of Palmares: A Maroon Settlement in 17th century Brazil". *the African Diaspora Archaeology Network*, March 2007 Newsletter.

Chagas, Miriam de Fátima(2001), "A Política do Reconhecimento dos "Remanescentes das Comunidades dos Quilombos"", *Horizontes*

*Antropológicos*, No.15, pp.209-235

De Albuquerque, Wlamyra R.,and Filho(2006), Walter Fraga, *Uma História Do Negro no Brasil,* Brasília, Fundação Cultural Palmares.

De Castro, Yeda Pessoa, "Dimensão dos Aportes Africanos no Brasil", http://www.casadasafricas.org.br/site/img/upload/723906.pdf

Fiabani, Adelmir(2007), "O quilombo antigo e o quilombo contemporâneo: verdades e construções", XXIV Simpósio Nacional de História.

_____ "Quilombo: Africanos, Indios e seus descendentes lutaram pela liberdade.

Fonseca, Maria Nazareth Soares(2000), *Brasil Afro-Brasileiro*, Autêntica, Belo Horizonte.Revisra de Histórica Regional, Vol 6. No.1, pp.11-38.

Funari, Pedro Paulo(2001), Heterogeneidade e Conflito na Interpretação do Quilombo dos Palmares.

Gomes, Flávio Dos Santos(2004), "Slavery, Black Peasants and Post-Emancipation Society in Brazil(Nineteenth Century Rio de Janeiro)", *Social Identities*, Vol.10, No.6, pp.735-756.

Kenyan, "On a Communitarian Ethos,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Africa", http://www.iheu.org/node/2360(2009.10.31)

Leit, Ilka Boaventura(2007), The Transhistorical, Juridical formal and the Postutopian Quilombo, Rethinking Histories of Resistance in Brazil and Mexico Project, 2007.

_____(2000), "Os Quilombos no Brasil: Questões Conceituais e Normativas", *Etnográfica,* pp.333-354.

Machado, Maria Helena Pereira Toledo, "From Slave Rebels to Strikebreakers: the Quilombo of Jabaquara and the Problem of

Citizenship in late0Nineteenth-Century Brazil",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 2006. pp.247-274

Marin, Rosa Acevedo, Castro, Edna Ramos, "Mobilização Política de Comunidades Negras Rurais: Dominios de Um Conhecimento Praxiologico", *Novos Cadernos NAEA* Vol.2, N0 2, Dezembro 1999. pp.73-107.

Moura, Clóvis(1988), *Sociologia do negro Brasileiro*, Serie Fundamentos 34, São Paulo.

Munanga, Kabengele(1996), "Origen Histórico del Quilombo en Africa" America Negra, No. 11. pp.11-21.

Nascimento, Abdias do(1980), "Quilombismo: an Afro-brazilian Political Alternative", *Journal of Black Studies*, Vol.11, No.2. pp.141-178

Peralta, Rosa, Novembro 2007: Sacopãa: resistêencia de um quilombo urbano, *Observatorio Quilombola,*

Price, Richard, "Reinventado a História Dos Quilombos: Rasuras e Confabulações", *Revista de Afro-Ásia,* No. 23, 2000,

Santos, Gilberto Lima dos; Chaves, Antonio Marcos(2007), "Ser quilombola: representações sociais de habitantes de uma comunidade negra/ Black community inhabitants' social representations", *Estudos de Psicologia* vol.24 no.3

Schmitt, Alessandra, Manzolituratti, Maria Cecília & Carvalho, Maria Celina Pereira de(2002), "A atualização do conceito de quilombo: identidade e território nas definições Teóricas", Ambiente & Sociedade, Ano v, No. 10. pp.1-6.

Silva, Luiz Geraldo(2008), "Governos e reinados negros. Conflito, hierarquia

e poder entre crioulos e africanos (Pernambuco, 1750-1814)", BRASA IX - Tulane University, New Orleans, Louisiana, 27-29 March 2008.

Valente, Ana Lúcia, E.F, "Repensando a Questão da Territorialidade Negra", *Revista de Afro-Ásia,* No.16, 1995. pp.133-146.

논문투고일자: 2009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21일